

극한 상황에서도 자제하는 것이 성공한 삶 모정으로 가정과 동일시한 기업운영

박복순 / 공성기업사 사장

제판업은 수작업에서 자동화 작업까지 부분적으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다.

특히 제판공정이 완벽해야 인쇄 공정에 무리가 없어 제품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섬세한 작업을 펼쳐 국내 제판업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으로 (사)한국포장협회 이사가 된 공성기업사 박복순 사장은 실제 작업을 하고 경영 일선에 나선 것은 불과 5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1971년 회사를 창업한 김영길 사장을 내조하면서 닮은 기술은 부군이 타계한 90년 7월 이후 회사를 맡으면서 빛나기 시작했다.

신기술 개발과 납기 단축을 위해 과감한 시설 투자에 나선 박복순 사장은 국내 제판사 가운데 일일 생산량이 최고에 이르게 했고 총체적인 품질관리로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거래처 등 주변에 제품의 믿음을 주어 도금업체로써는 받기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특히 부메랑설비와 헤리오설비의 과감한 투자로 정교한 인쇄에 적합한 동판 제작이 가능하게 됐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거래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공업단지에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올해



▲ 박복순 공성기업사 사장

에는 헤리오조각시 필름 없이 조각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여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 가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배척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창기 경영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부군의 타계)도 잃었는데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느냐

는 생각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박복순 사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되새기며 그간 겪었던 것은 단 한번의 가슴 아픈 시련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라 일축했다.

90년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중간 관리자들이 운영을 잘해 줘 어려운 고비를 순조롭게 넘기기도 했다는 박 사장은 회사 직원 모임인 공우회에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현재는 기금을 5,000만원으로 늘려 주었다.

“기업이 잘 운영되는 것은 경영자보다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겠지요”

어머니로써 때론 아버지로써 벽이 되어 주고 마음의 창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 사장은 회사라는 개념보다 가정을 이끈다는 생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로써 공성을 이끌고 있는 박 사장은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싶지만 아직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적어 마음이 아프다.

‘용기 있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지론을 펴고 있는 박 사장은 노는 것을 잘 해야 일도 잘한다는 신념으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와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섬세한 여성 특유의 감각에 과감성까지 갖춰 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박 사장은 회사가 어려울 때도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최신 기계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 기술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진일보시켰다.

특히 93년 안산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헤리오 1호기를 설비하면서 제2의 창업과 함께 도약을 시도했는데 부군이 시작한 업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단막극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공성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에서 비롯됐다.

설비 투자의 또다른 이유는 돈만이 행복이 아니라 설비 투자를 통해 이 분야의 산업 발달을 앞당긴다는 대국적 견지에서였다.

박 사장은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면 지금처럼 강하게 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매사에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박 사장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여 외부에서 일을 할 때면 촌음도 헛되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객 만족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공성의 박 사장은 직원들이 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물을 지켜 주고 서운하지 않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여러사람의 은혜가 있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직원들도 내가

아니면 마무리가 안된다는 생각으로 맡은 자리를 빛내 줘 지금까지 공성이 자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은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직원들이 남편 역할을 해주고 저는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개개인의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박 사장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먼저 실천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항시 즐거워 보이지만 혼자서 울기도 많이 했다”는 박 사장은 “가장 성공하는 삶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자제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최고의 아품을 맛보았던 것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박 사장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같이 화내고 쉽게 동화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스로 믿음을 갖고 매사에 도를 닦는 마음으로 어떤 세파에 부딪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인이 될 것”이라 다짐하는 박 사장은 “직원들과 협력 업체들의 도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 밝히는 박 사장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품질 관리와 납기 단축에 노력하여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성은 사원 복지 후생을 위해 식당 개선, 각종 위락 시설을 갖춘 휴게실 마련, 사원 주택 마련 기금 조성 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천 지역에서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성은 지역사회나 포장 업계에 큰 보탬이 되도록 매진하여 타기업보다 앞서가는 여성 기업인의 선두 주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K]

오선진 기자